

ISSN 1599-7863

박물관사람들

2022년 겨울 · 79호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박물관사람들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2022년 겨울 79호

기획 / 안동

- 04 |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게
- 08 | 선한 사람이 많아지는 세상을 꿈꾸다
- 12 | 품격의 초상

문화칼럼

- 16 | 이동파 그림으로 보는 러시아 문명

회원마당

- 20 | 떠난 자를 위한 기도
- 24 | 우리네 삶 같은 남산의 부처님들

박물관 탐방

- 28 | 슬기로운 국악생활 - 국립국악박물관

박물관회 소식

- 32 | 2023년 국립중앙박물관회 사회교육 프로그램 안내
- 36 | 제12회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 공고

숨은전시

- 37 | 두 손 가벼운 여행

국립중앙박물관회는

- 38 | 기부회원 명단



발행일 2022년 12월 5일 발행처 국립중앙박물관회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전화 (02)2077-9790~5
기획 이재범 편집위원 강현자·길문숙·문정원·서유미·정은경 진행 강지은 디자인 동방문화 (02)2275-1913, 1924
전자우편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www.fnmk.org

회지에 글을 쓰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회 사무실로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서원 양호루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게



안동 태사묘

안동. 가본 적이 없더라도 웬지 대충은 알고 있는 곳처럼 생각되는 이곳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을 때는 1980년대 후반. 하회마을을 가려고 청량리역에서 비둘기호 열차를 타고 안동역까지 아마도 7시간가량 걸렸던 것으로 기억한다. 안 그래도 시간이 느리게 가는 나이에 친구들과 지지도록 떠들고 게임하고 노래를 불러봐도 시간이 남아 한잠 자고 일어났는데도 영영 도착 못 할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비둘기호도 없어지고 그 구불구불했던 철길도 직선화되어서 고속철로 2시간이면 갈 수 있다. 하여간 어릴 적 그런 경험과 당시 하회마을의 모습이 겹쳐져서 상당히 오랫동안 거기는 멀고 외지고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고장이라 생각했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안동을 여러 번 방문 또는 답사할 기회가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다. 그럴 때마다 안동은 그렇게까지 먼 곳이 아니며 그때 갔었던 하회마을은 안동의 문화유산 중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무엇보다도 안동은 과거에 '안동대도호부安東大都護府'라는 중요하고 큰 행정구역이었으며, 어느 정도 부침을 겪으면서 옛날만 못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2016년에 대구에 있던 경북도청이 이리로 이전하면서 예전의 영광을 어느 정도 되찾아가는 분위기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동을 안동으로 만든 사람들의 흔적을 찾아가 보았다. 당연히 사당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태사묘太師廟 정문을 통과했는데, 정면에 송보당이라는 건물이 있고 양옆에는 마치 향교나 서원처럼 동재와 서재 건물만 보여서 잠시 어리둥절했다. 그러다가 동재에 앉아 계신 분이 문화재 해설사라는 것을 알아채고 해설을 청하니, 잠시 기다리라며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손에 열쇠가 들려 있어서 반색했다. 그리고 고맙게도 사당으로 들어가는 작은 문이 열렸다.

견훤과 왕건의 운명을 가르게 된 고창 전투의 무대가 바로 이 고장이었다. 사상 최대의 판도를 자랑하고 있던 후백제에 맞서 수세에 처한 고려가 만약 이곳을 포기한다면, 후백제 군의 북진로가 열리면서 그나마 왕건 편에 서 있던 호족들이 대거 이탈, 고려는 멸망할지도 모르는 상황. 그 어려울 때 이 지역의 신라 호족들이 대거 왕건 편에 서준 덕에 고려가 대승하면서 형국이 뒤집히게 된 것이다. 왕건은 이들이 어찌나 고마웠는지 고창에 동쪽을 평안하게 했다는 뜻의 안동이라는 이름을 주고, 고려 최고 직책인 태사직을 권행, 김선평, 장정필에게 주니 이들이 바로 태사묘의 주인들이다. 그리고 이들이 안동 권씨, 안동 김씨, 안동 장씨의 시조들이 되었다. 특히 권씨와 김씨는 지금도 자손이 번성한 가문들이라 그 두 성씨가 안동 시장과 국회의원 자리를 놓고 종종 경쟁한다고 한다. 참고로 현재 안동시장은 안동 권씨, 지역구 국회의원은 안동 김씨이다. 동재에는 김씨, 서재에는 권씨 대종회 팻말이 걸려 있는 것과 더불어 유난히 잘 관리되고 정돈된 태사묘의 상태는 그 후손들의 힘을 반영하는 것 같다.

이후 안동이 고려와 조선을 거쳐 약 천 년 가까이 지역의 중심지라는 위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저력이 궁금해졌다. 일단 불리한 전세를 역전시킬 만큼의 힘이 있는 호족들의 존재는 고려 이전에도 잘 나가는 고을이었다는 증거다.



운흥동 오층전탑

그때의 흔적 중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구 안동 역전에 있는 통일신라시대 전탑이다. 안동찜닭으로 저녁식사를 하고선 산책 삼아 운흥동 오층 전탑을 보러 갔다. 벽돌이라는 재료의 한계 때문인지 각 층의 처마는 얇고 지붕도 좁고 가파르는데 거기에 촘촘히 기와를 얹어놓은 모습이 특이하다. 탑 주변은 정적에 싸여 있었다. 8시가 넘은 시간에 지방 도시의 거리가 한적한 것이 이상하진 않지만,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밤늦게까지 불을 밝혔던 안동 역전이었던 것을 생각하니 많이 허전했다. 다음날 아침에 답사를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 번 탑을 찾아갔다. 밝을 때 다시 보니 지난밤에 못 봤던 것들이 보였다. 감실이 층마다 있었고 2층에 인왕상 부조가 붙어 있는 것도 발견했다. 거기에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당간지주까지. 아마도 이 자리에 있었다는 법림사는 어느 호족의 후원을 받는 대처의 멋진 절이 아니었을까?





임청각 내부



법흥사지 칠층전탑, 2010년 촬영



법흥사지 칠층전탑, 2022년 촬영

현존하는 전탑 다섯 개 중에 안동에만 세 개가 있다. 조탑리 전탑은 현재 보수 중이라 아예 볼 수 없으니 법흥사지 칠층전탑으로 간다. 전탑 중 예선 유일하게 일찌감치 국보로 지정된 탑이지만 2010년 여름에 방문했을 때 봤던 모습은 국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였다. 바로 옆을 지나가는 중앙선 열차 진동 때문에 기울어 간다는 소릴 듣고 갔는데도 철도 방음벽과 고성 이씨 종택 사이에 끼어 있던 답답한 입지에 지붕엔 풀이 수북하게 자라기까지 한 모습을 정말 민망했었다. 그래서 이번 답사에선 선로 철거한 뒤의 모습이 꼭 보고 싶었다. 아직 주변이 공사 중이긴 해도 원하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게다가 늘 굳게 닫혀 있던 고성 이씨 탑동파종택도 개방하여 입구 카페에서 음료수 한 잔을 사면 들어가서 오래 머물 수 있게 되었다.

철도가 철거되어 빛을 본 것은 바로 옆에 있는 독립운동의 성지 임청각도 마찬가지다. 행랑 중정에 마련된 작은 전시공간에서 임청각의 종손이자 석주 이상룡 선생의 아들인 이준영 선생이 1942년에 임청각 앞으로 중앙선이 놓인 해에 치욕을 견디지 못해 자결했다는 내용을 읽었다. 그리고 작은 방 한 칸에 이상룡 선생의 사진과 함께 오래된 태극기가 걸려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울컥했다. 대문 밖 담장 아래에 철도 개설로 인해 철거됐던 부분을 발굴하는 현장이 있었다. 사랑채 계단 위에 서니 아직 공사현장 가림막이 약간 방해되지만 예전과 달리 탁 트인 낙동강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멋진 집을 버리고 기약 없는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만주로 걸어가는 심정을 상상해본다. 나중에 일제강점기 말기에 임청각을 토막 내고 들어선 그 철도를 타고 안동 사람들이 독립운동하러 만주로 갔다는 글을 보고선 억울한 마음이 아주 조금 상쇄되는 기분도 들었다. 전날 컴컴한 구 안동역을 보며 아쉬워하던 마음이 이곳의 짙한 햇볕 아래서 증발해버렸다.

그제야 낙동강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보니 안동의 명소엔 늘 물이 있었다. 하회마을, 병산서원, 도산서원, 임청각 외에도 그냥 안동엔 물가가 정말 많았는데 몇십 년을 뻥히 보면서도 무심하다가 이번 답사에서 각성한 것 같다. 이번 답사 내내 계속 낙동강 본류와 지류인 반변천을 끼고 달렸다는 것도 깨달았다. 과거 안동의 번영에 바로 이 물이 큰 몫을 했던 것이다. 갈수기엔 말라붙기도 하지만 장마철부터 가을까지 불어난 물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을 부양했고 이 계절에 안동의 대항진大項津은 남해안



임청각, 2010년 촬영



임청각, 2022년 촬영

에서 출발한 낙동강 수운의 주요 포구였기에 소금을 비롯한 각종 물산들과 사람들이 오갔다. 안동은 전근대 시대 한반도의 고속도로인 강을 끼고 물류 터미널을 운영했다. 봐도 괜찮을까? 호족이든 양반이든 일단 풍족해야 행세하며 살 수 있는 거다.

하지만 안동을 번영하게 한 물이 슬픔도 가져다주었다. 정부 주도 경제개발을 하면서 1970년대엔 안동댐, 80년대엔 임하댐을 착공했다. 강을 막아서 생긴 아름다운 호숫가

엔 서슬 퍼런 시기에 뭐라 저항도 못 해 보고 고향을 떠나 옮겨 앉은 고택들과 집성촌들이 자리했다. 예끼마을, 군자마을, 지례예술촌 같은 곳들이다. 그나마 고택이라도 옮기고 다시 자리 잡을 여유 있는 집안들은 다행이었지만 소작농들에게 고향을 잃은 슬픔은 사치였을지도 모른다. 턱없이 부족한 보상을 받고 맨몸으로 쫓겨난 생존의 기로에서 맨손으로 불모지를 옥토로 바꿔가며 정착했다.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안동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던 한국국학진흥원 옆 높은 언덕 위에서 안동호를 내려다보고 있는 호계서원도 그렇게 수몰을 피해 전전하다가 이곳까지 왔다. 모든 사연들을 뒤로하고 양호루養浩樓에서 바라보는 안동호는 정말 평화롭고 아름답다. 낙동강을 타고 올라왔던 뱃사공이 보았을 안동을 상상해본다. 강 양쪽으로 이어지는 정자와 집성촌들과 서원들을 지나 포구가 가까워지면 저 멀리 보이는 커다란 전탑 그리고 활기찬 포구와 읍성, 그리고 목소리 크고 정열적인 안동 사람들. 🌊

서유미 회원



호계서원 양호루

선한 사람이 많아지는 세상을 꿈꾸다



강세황필 <도산서원도>, 국립중앙박물관

안동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안개였다. 아침 일찍 서원 산책을 하기로 했는데 안개가 길을 막았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안개가 자욱해서 길을 나설 수가 없었다. 안개의 위력이 대단했다. 안동은 안동댐과 임하댐이 생기면서 물의 도시, 안개의 도시가 되어 버렸다. 안개 일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도시라고 한다. 10시가 넘어서야 안개가 걷혔다. 안개를 걷어낸 것은 화창한 날씨였다. 하늘빛은 그야말로 코발트색 물감을 부여놓은 듯 청명했고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그 하늘 아래 수많은 문화유산을 품고 있는 곳이 바로 안동이다. 하회마을을 비롯하여 도산서원, 병산서원, 봉정사 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세계유산의 도시가 되었다. 또한, 안동은 조선 시대부터 지금까지 유교의 전통이 가장 잘 이어져 오는 곳으로 유학의 고향이라 불린다.



도산서당



계상서당



계상서당 현판

오늘은 조선을 대표하는 유림 중에서도 안동의 대표 유학자인 퇴계 이황과 서애 류성룡이 안동에 남긴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자 한다.

퇴계 이황(1501~1570)은 관직에서 물러난 뒤 고향인 안동으로 내려와 학문을 연구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며 여생을 보냈다. 도산면 토계리에는 토계溪라는 작은 개울가 비탈에 작은 건물 세 채가 있다. 이 중 '계상서당溪上書堂'이란 현판이 걸린 초막이 있는데, 이황은 이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황은 개울의 이름에서 따온 '퇴계退溪'로 호를 삼았다고 한다.

제자들이 몰려들자 '계상서당'이 비좁아 산 너머 낙동강변에 '도산서당陶山書堂'을 지어 옮겨갔다(1560년). 이듬해에는 도산서당 옆으로 제자들의 기숙사인 '농운정사隴雲精舍'도 지었다. '도산서당'과 '농운정사'는 이황이 직접 설계하였다고 한다. 열기설기 싸리나무로 엮어놓은 '유정문'이라는 이름의 작은 문 안으로 낮은 지붕과 짧은 처마로 된 소박한 3칸 건물이 '도산서당'이다. 이황의 검소하고 소박한 삶이 그대로 들여다보인다. 오른쪽에 대청마루인 암서헌巖栖軒, 중앙에 침소이자 독서 공간인 완락재琬樂齋, 맨 왼쪽에 부엌이 있다. 부엌 한쪽에는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정도의 골방이 있는데, 제자들을 훈육할 때 사용했다고 한다. 도산서당陶山書堂 현판은 이황이 직접 쓴 친필로, '山' 자는 산의 형상으로 표현

했고, '書' 자에는 새를 한 마리 그려 넣었다. 이황이 지은 대청마루와 온돌방 이름인 암서헌(자연에 깃들어 산다)과 완락재(즐거움을 한껏 누린다)의 의미가 그 글자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 도산서당은 천 원짜리 지폐 뒷면 그림인 겸재 정선의 '계상정거도'의 배경으로 추정된다.

이황 사후 그의 학덕을 기리고 후학을 양성하기 위한 유림의 발의로 기존 도산서당을 모체로 그 뒤쪽에 서원을 짓고 1575년 사액을 받아 '도산서원'이 되었다. '도산서원陶山書院'의 편액은 한석봉 글씨이다. 도산서원 건축물은 소박하고 검소하게 꾸며졌으며 이황의 품격과 선비의 자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 앞쪽으로 강학 공간이 있고, 뒤쪽으로 제향 공간이 있



도산서당 유정문



퇴계종택

으며 서원의 앞쪽으로 흐르는 낙동강변은 유생들의 유식遊息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서원 뒤쪽에 있는 '상덕사'에는 이황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이황의 위패는 도산서원 외에도 전국적으로 수십 군데가 넘는 서원에 모셔져 있다. 하지만 신주는 하나밖에 모실 수 없기 때문에 이황의 신주는 퇴계종택의 사당에만 모셔져 있다. 도산서원에서 고개를 넘으면 토계리에 '퇴계종택'이 자리하고 있다.

서원이나 고택에 가면 빼놓을 수 없는 일이 대청마루에 앉아서 멍 때리는 일이다. 대청마루에 앉아 있으면 시간도 생각도 모든 흐름이 멈춘 듯 느껴

진다. 내 안의 어떤 것들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면서 아무것도 없는 세계 속에 있는 것처럼 고요해진다. 고건축이 주는 여백의 미 때문일까. 안동은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는 고건축들이 많다.

그중 머물고 싶도록 아름다운 공간인 '옥연정사'로 가본다. '옥연정사玉淵精舍'는 서애 류성룡(1542~1607)이 만년에 학문을 연구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세운 서당이다. 이황의 최애 제자로 알려진 류성룡은 뛰어난 안목으로 이순신이라는 영웅을 탄생시켰다. 류성룡에게는 임진왜란과 징비록을 빼놓을 수 없다. 관직에서 물러난 류성룡은 하회마을을 강 건너 부용대 기슭에 '옥연정사'를 짓고(1586년), 이곳에 머물면서 임진왜란의 원인과 전황을 기록한 『징비록懲毖錄』을 집필하였다. 『징비록』은 지난 일을 경계해 후환을 삼가라는 뜻이다. 한산대첩을 비롯한 전쟁 이야기와 노모에 대한 그리움 등 인간적인 면모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병산서원



부용대에서 바라본 충효당



충효당 현판

'옥연정사'는 문간채, 바깥채, 안채, 별당채까지 두루 갖추고 있다. 온돌방을 둔 독특한 구조이다. 별당채는 류성룡이 『징비록』을 집필한 서재이고, 맨 안쪽의 안채는 서당으로 사용하던 곳이다. '옥연'이라는 이름은 부용대와 하회마을을 휘감아 흐르는 깨끗하고 맑은 물빛이 마치 옥과 같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낙동강이 내려다보이는 풍광이 빼어난 곳이다.

강 건너 맞은편 하회마을에 류성룡의 종택인 충효당이 자리하고 있다. 사랑채 대청에서 뒤뜰로 드나들 수 있는 띠살문 위쪽에 새겨져 있는 '충효당忠孝堂' 현판은 미수 허목(許穆, 1595~1682)의 글씨이다. 미수체라 부르는 독특하면서도 아름다운 글씨체가 눈에 뜨인다.

하회마을 끝에 있는 원지정사遠志精舍는 영의정을 지내던 류성룡이 조정에서 물러나 고향에 내려와 있을 때 머물던 곳이다. 연좌루燕座樓에 오르면 강변의 만송정과 강

건너 부용대의 빼어난 풍광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낙동강변을 따라 산 너머에는 류성룡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병산서원屏山書院이 있다. 병산서원은 한국 서원 건축의 백미로 알려져 있다.

자연을 벗 삼아 학문을 닦고, 제자를 길러내며 '착한 사람이 많아지는(善人多)' 세상을 평생의 꿈으로 삼았던 이황처럼, 류성룡 또한 자연과 산수를 사랑하고 후진 양성과 학문 연구에 여생을 바쳤다. 안동을 대표하는 두 유림, 영남 유림의 구심점이 된, 이황과 류성룡은 영남후생들의 추앙을 받았다. 먹구름 같은 안개를 벗긴 맑고 화창한 안동의 하늘빛만큼이나 진하게 그들의 자취가 안동에 남아 있다. 어쩐지 안동의 안개가 그들의 위력을 닮은 듯 인간적이며 따뜻하게 느껴진다. 🌿

강현자 회원



원지정사와 연좌루



옥연정사

품격의 초상



의성 김씨 종택



안채



2층 누마루



경모각

어제의 햇볕으로 오늘이 익는 / 여기는 안동
과거로서 현재를 대접하는 곳.

류안진 시인의 '안동'은 두 손을 저절로 맞잡게 하는 힘이 있다. 같은 느낌 때문에 발길이 자주 향하는 곳이 안동이다. 예스러운 정취와 풍광이 깃든 반촌班村과 재사 공간, 귀감이 되는 유학자들을 기리는 많은 서원과 정자, 불교 유적까지 문화유산의 최고 경지이다.

그런데 안동 동쪽 임하를 만나면서 나의 부족함과 무심함이 닿지 못한 안동의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안동댐에 이어 임하댐으로 전통마을이 수몰되었다는 안타까움이 스쳐가던 곳, 그곳에 그야말로 깊고 아늑한 마을이 있었다.



의성 김씨 종택

일월산의 지맥이 낙동강 지류 반변천과 만나 자리를 들고, 천이 마을 앞을 돌며 아름다운 모래밭을 자연스럽게 형성하니, 『택리지』가 '말간 비단 사이로 밝은 달이 비치는 형상流紗明月形'이라 삼남의 길지로 꼽은 의성 김씨 집성촌 내앞마을이다.

의성 김씨는 집현전 학사 김한계가 수양대군의 왕위찬탈에 안동으로 내려왔고, 그 아들 김만근이 임하 해주 오씨 집안에 장가들며 터를 닦았다. 손자 청계 김진 대에 다섯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여 '오자등과택'(五子登科宅)이라 불리며 크게 번성하여 안동 명문 사족으로 임하에 자리를 잡았다. 마을에는 청계를 불천위로 모시는 의성 김씨 종택을 중심으로 귀봉종택, 백하구려, 제산종택, 추파고택, 몽선각 등 많은 고택과 정자가 남아 있으며, 후학들을 양성하던 운곡서당, 우곡서당 등이 있다.

소나무 숲을 배경으로 반듯한 의성 김씨 종택은 솟을대문 없이 수평으로 긴 행랑채 위에 크고 작게 솟은 합각면이 인상적이다. 왼쪽으로 보이는 작은 사랑채에 관리자분이 계셨다. 소박하지만 격조 있는 대문 안으로 여느 고택들과는 아주 다른 구조가 펼쳐진다. 정면에 사당으로 향하는 협문이 보이고, 좌우로 높은 기단 위에 사랑채와 안채의 쪽마루 끝이 보인다. 안쪽 깊숙이 복도식 2층 통로를 가진 사랑채는 처음 만난 낯선 느낌이고, 쪽마루를 오르는 계단참 맞은편은 안채로 가는 쪽문과 연결된다. 안채

로 들어서면 질서정연한 기둥 사이로 ㄱ자 안마당이 보이고, 대청마루가 세 개의 단으로 나뉜다. 열린 공간인 대청에서도 위계를 세우는 안동 양반의 갑갑함 너머 대청마루 건너편에 누마루 같은 2층 공간이 있다. ㄱ자 작은 마당 위 높은 하늘이 바깥세상의 전부였던 안채 여인들이 위계 질서를 떠나 잠시 쉬어갈 수 있었던 공간이 아닐까? 우겨 보고 싶어진다. 깊은 공간을 가진 오래된 살림집에서 밖을 향한 시선을 만든 건축가가 궁금해진다. 건축 양식이 특이해 찾아보니 화재로 소실된 집을 청계공의 넷째 아들인 학봉 김성일이 명나라 상류주택을 응용하여 재건하였다고 한다. 퇴계의 제자로 명망이 높았던 학봉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 양해를 얻어 사랑채를 잠시 둘러볼 수 있었는데, 위엄 있는 넓은 대청은 제청으로 사용하는 공유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해 보였다.

불천위를 모시는 경모각 솟을대문 옆에는 온몸에 힘을 빼고 웅장한 듯 쓸쓸한 회화나무가 500년 세월 굳건히 품격을 지킨 의성 김씨를 대신한다.

안동 유림들은 일찍부터 의병 항쟁을 주도해왔고, 새로운 길을 모색한 류인식, 김동삼, 이상룡, 김대락 등 혁신유림들은 1907년 근대식 협동학교를 설립하였다. 가산서당에서 시작해 김대락의 고택인 백하구려白下舊廬에 자리한 협동학교는 1919년 3·1운동 이후 강제 폐교될 때까지 독립투사의 산실이었다. 안동 하회를 모르는 이는 없어도



내앞을 아는 이는 별로 없다.
나라가 망하자 독립투쟁을 위
해 마을이 거의 통째로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사에 특별한 족
적을 남겼으나 대부분 돌아오지
못했고, 남아 있던 사람들도 일가의
독립운동을 지원하느라 가세가 기울고

후손이 흩어진 탓이다. 김동삼은 서간도에서 항일
투쟁을 이끌고, 국민대표회의 의장으로 한국 독립운동계에 큰
별이 되었다. 김대락은 독립운동에 천석의 재산을 헌납하고,
김락은 고문으로 두 눈을 잃어가면서 항일 투쟁에 헌신했다.
송고한 정신이 담긴 내앞마을 가산서당 자리에는 경북 독립운
동기념관이 세워졌다. 내앞은 꼭 기억해야 할 초상이고, 독립
운동의 성지이다.

임하에 내앞이 있다면 임동에는 전주 류씨 무실이 있다. 16세
기 류성이 청계공의 사위가 되어 무실에 정착하고, 그 자손 류
복기, 류복립이 청계의 사회경제적 기반 아래 학봉의 학통을
계승하면서 무실은 대표적 반촌으로 성장하였다. 학문적 정신
적 중심점이 된 기양서당은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결속을 다지
는 상징이었다. 퇴계학의 종장으로 성리학을 깊이 탐구한 유
치명은 영남의 대표학파를 형성하였는데, 이는 의병과 독립운
동의 주도적 역할에도 직·간접 연관이 되었다. 경술국치를 만



수애당

나 의병장으로 순국한 류시연, 항일 계몽운동의 선각자 류인
식, 상해 임시정부 국무위원 류림 등 영남 사림의 큰 맥을 잇
는 인물들이 배출됐다.
류씨 가문은 특히 문집의 공유를 통해 가문의 위상을 강화하
고, 집단 지성을 형성하였다.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한 도서
만 341종 621책이다.

1992년 임하댐 건설로 아기산 물줄기가 마을을 둘러싼 형상
이던 무실이 수몰되었다. 보통 새로 형성된 마을에 정착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양상과 달리 전주 류씨는 산자락 높
은 곳에 새 무실을 짓고, 한편으로는 구미시 해평면 일선리에
터를 잡아 건재하였다. 매년 정월 초엿새 기양서당에서 세배
를 올리는 세시 의례를 행하고 시사와 제례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무실의 전통 세시 풍속에 논매기를 마치는 7월 중순경에 치러
지는 마을 잔치 ‘뫼구’가 있다. 고된 농사일을 마치고 농부들
이 한시름을 놓을 때, 한바탕 신명 나게 놀면서 농사일 때문
에 미뤄 두었던 마을의 공동 작업을 벌인다. 마을을 이루고 살
아서 이어지는 명맥이다.

옛사람의 발자취를 따라 안동을 답사했던 최종현 교수는 이곳
할머니들과 인터뷰를 통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한다. 안동
동쪽 의성 김씨와 전주 류씨가 거주하는 동반의 부녀자들이
일 년에 두 번 정도 황산사, 지금의 봉황사에서 하루 종일 노는
절놀이 풍습이 있었고, 이는 역불승유와는 다른, 종교가 지역
사회에서 담당하는 문화 교류 기능이라는 것이다. 문득 불교가
갖는 도덕적 순수성과 유학이 지닌 공동체 지향의 윤리 정신
이 전통의 원형을 지켜준 문화유산의 보고라는 글과 의성 김
씨 종택의 2층 누마루가 떠오른다.

무실 종택은 몇 년 전까지 70대의 종부가 살고 있었다고 들었
는데, 문이 굳게 잠겨 있어 담 너머 사랑채를 훑쳐봐야 했다.
솥을대문 앞 돌비에는 아기산을 호로 삼은 기봉 류복기의 옛
집이라는 뜻의 기봉구려岐峰舊廬를 새겼다. 길 건너편으로 독
립운동가 수애 류진걸의 수애당이 있다. 운현궁을 보수한 대
목수가 춘양목으로 지은 마지막 작품이다. 봉화군 춘양에 역



봉황사 대웅전 ©문화재청



봉황사 대웅전 천장

지로 철길을 놓으며 ‘역지 춘양’이란 말이 생겼다는데, 이 일
대 질 좋은 태백산 소나무에도 춘양목이라 이름을 붙였더니
춘양이란 곳이 궁금하다. 이 멋진 고택은 수애 손자 부부의 손
길이 더해져 고택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한 가지 더 수애당의
소소한 즐거움은 귀염둥이 고양이 가족의 재롱을 보는 일인
데, 한옥의 지붕과 마당을 뛰어다니며 활력소 역할을 하고 휴
식을 선물한다.

무실을 찾아가며 개목사 근처의 함벽당이 생각났다. 문과에
급제해 관직을 역임하다 귀향한 전주 류씨 류경시가 후학들을
가르치고 독서하던 장소이다. 막돌로 쌓은 석축 위에 지어진
정자이고 류경시 사후 철종 13년 중건되었다. 방 앞에 난간을
두른 대청 위에 앉으면 그저 푸르름 속에 잠겨 청백리 류경시
처럼 소박해질 수밖에 없다. 얼마 전 출간된 『함벽당 간찰』에
서 지방관으로 머물 때도 편지를 통해 집안 대소사와 가정 경

제를 꼼꼼하게 관리하고, 목민관의 책임을 다하고자 했던 면
모를 다시 볼 수 있었다.

서릿발 붓끝이 제 몫을 알아
염치가 법규를 앞서던 곳
불편한 옛것들도 편하게 섬겨가며
참말로 저마다 제 몫을 하는 곳.

삶이 찰나라 하지만 너무나 쉽게 일희일비하는 세상이다.
‘안동’의 시구에 고개가 주억거려지는 건 명예로운 전통은 삶
의 지표이자 위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내어주신 마음이 참 깊으셨던 아버님을 여의었다. 삶
의 기준을 세워주신 따뜻한 음성이 귓가에 기쁘게 남아 있다.
이 그리움 역시 내게는 위로가 되리라. 🐾

정은정 회원



전주 류씨 무실 종택 사랑채



함벽당



바실리 폴레노프, <모스크바의 딸>, 트레차코프 미술관

이동파 그림으로 보는 러시아 문명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러시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러시아의 팽창 야욕, 그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그 나라가 풍기는 억압과 부자유 등일 것이다. 이런 이미지들은 우리가 미국 진영 내에서 소련을 악마화하는 데 동참했던 냉전 시대의 오랜 반공 교육의 소산이다. 흥미롭게도 소련 시대나 그 이후에 러시아를 직접 방문해 본 사람들은 이런 반공주의적 이미지들과는 전혀 다른 인상을 받기도 했다.

영국의 역사가 오버리(R. Overy)는 러시아 도시에 널려 있는 수많은 꽃가게의 존재를 보고 놀랐다. 곤궁한 형편 속에서도 꽃을 자주 사고, 선물로 주고받는 게 일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정녕 팽창의 화신이나 공포의 대상이란 말인가. 미술사가 이진숙은 추운 겨울에 트레차코프 미술관 앞에 길게 줄 서 있는 소박한 모습의 모스크바 시민들, 즉 자국민이기에 그전에도 수없이 보았을 미술품들을 또 보러 온 사람들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자기 문명의 예술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운 일상으로 삼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냉전 시대 서방이 채색한 러시아의 이미지와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 주로 외국 관광객들로만 북적대는 서유럽과 미국의 박물관, 미술관 앞에서 이런 소박한 예술애호가들을 얼마나 만날 수 있을까.

냉전 시대의 색안경을 벗어내고 러시아 문명과 그 사람들의 본질에 다가가는 좋은 방법 하나는 그들이 이렇게 일상적으로 즐기는 예술작품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19세기 후반 러시아 제국의 화단을 지배했던 이른바 이동파(Передвижники)의 그림들은 특히 유용하다. 유럽 미술계의 인상주의 홍수 속에서도 끝까지 사실주의를 고수했던 이동파는 당대 러시아의 사회상과 현실을 고발하고 비판적으로 재현하는 데 주력했던 유파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동파는 그들이 살던 시대, 즉 러시아 제정 말기의 현실 비판에만 집중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러시아 사람들의 삶과 표정 묘사를 통해, 그들 문명의 본질적 성격을 드러내는 데도 주안점을 두었다. 그들이 당대인의 모습을 넘어 러시아 역사의 장면들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재현하려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그들의 역사화는 러시아 민족의 영웅을 칭송하고 업적을 기리는 작업은 아니었다. 그 속에 설령 역사적 위인이 등장한다 해도 그들은 특별하거나 특출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 문명의 특성을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대표적이고 전형

적인 인물 중 하나일 뿐이다. 이런 이동파의 작품들은 러시아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교정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러시아 문명에 대한 우리의 오해는 이 나라가 유럽에서 가장 비세속적인 기독교 문명을 고수했던 나라라는 점, 그만큼 러시아 민중의 삶에 기독교는 깊게 뿌리내려 있었다는 너무도 자명한 사실을 망각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역사 시대를 아울러 러시아 민중, 특히 농민들의 삶은 매우 곤궁했다. 하지만 그들은 유럽 다른 나라의 민중보다도 신과 가까이 있다고 믿었다. 고된 일을 하다 허리를 펴면 하늘은 낮아서 바로 위에서 신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듯했고, 저 건너편에 보이는 장대하지만 소박한 느낌의 대성당은 그들에게 안위를 주는 것 같았다. 단순하고 고단했지만 그들의 일상은 평화롭고 경건했다.

이동파 화가 바실리 폴레노프(В. И. Поленов)의 <모스크바의 딸>은 이런 러시아 문명의 특징을 매우 잘 포착해 준다. 시골스러운 소박한 풍경, 일상의 단순함과 잔잔함,



바실리 수리코프, <모로조프가의 귀족부인>, 트레차코프 미술관

그리고 저 너머에 보이는 대천사 미카엘 성당은 대대로 이어온 러시아 민중의 삶을 압축한다. 붉은 광장에서 거대한 대포와 탱크를 앞세워 행진하는 군인들과 같은 냉전 시대 우리에게 낯익은 러시아의 이미지는 여기에 낄 자리가 없다.

이런 러시아 문명의 종교성과 소박함을 위협하는 것은 그들이 보기에는 서쪽에서 오는 속된 생각들 같았다. 러시아가 서양과 마주쳤던 역사적 시기마다 이른바 개혁가들이 나타났다. 그 개혁가들의 목적은 매우 다양하고 심지어는 상반되었지만, 러시아 민중에게는 모두 비슷하게 들렸다. 17세기 서쪽 가톨릭의 영향을 받은 러시아 총대주교 니콘은 러시아 고유의 기독교 종교 의례가 틀렸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한꺼번에 바꾸려 했다. 하지만 수많은 러시아 사람들은 그들 의례가 기독교의 본질을 옳게 간직해 온 것이라 확고히 믿었기에 그것을 바꾸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차이가 성호를 두 손가락으로 긋느냐, 아니면 세 손가락으로 긋느냐의, 세속화



니콜라이 게, <여름궁전에서 황태자 알렉세이 페트로비치를 문책하는 표트르 대제>, 트레차코프 미술관

된 현대인이 보기에는 너무도 사소한 문제로 집약되었음에도 말이다.

이동파의 대표적인 화가 수리코프(B. И. Суриков)의 <모로조프가의 귀족부인>은 니콘 개혁에 대한 러시아 사람들의 반응을 사실적으로 드러낸다. 바야르, 즉 대귀족 가문인 모로조프가의 귀부인이 '개혁' 세력에 의해 축출되면서도 두 손가락을 치켜올려 러시아 본연의 기독교 의례를 지키려 하는 모습, 그리고 오른쪽 아래 러시아 사람들이 기독교적 순수함의 상징으로 귀히 여기는 걸인 유로지비(Юродивый), 즉 백치 성자가 그녀와 소통하는 모습은 그 문명이 가진 종교성의 깊이를 말해주는 듯하다.

또 다른 개혁가 표트르 대제는 러시아 사회를 송두리째 서유럽의 모델을 따라 뜯어고치며 대대적인 세속화 작업을 시작했다. 18세기 초 집중적으로 추진된 그의 개혁 덕에 러시아는 유럽 열강 중 하나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많은 러시아 사람들은 그의 서구화 개혁이 기독교적 순수함, 즉 러시아 문명만이 간직하고 있다고 믿었던 영적인 것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믿었다. 곧 저항 세력이 등장했고, 그중 일부는 황태자를 앞세워 기독교 영성 국가로의 회귀를 꿈꾸기도 했다. 니콜라이 게(H. H. Ге)의 <여름궁전에서 황태자 알렉세이 페트로비치를 문책하는 표트르 대제>는 흔히 알려진 것처럼 부자 사이에 얽힌 감정을 묘사하는 가족화는 아니다. 서구 문화와 건축을 상징하는 바로크풍 그림들과 대리석 바닥이라는 배경, 그리고 역시 서구의 세속을 상징하는 살 오른 표트르 대제라는 주인공, 이 두 요소가 만들어 내는 서구화된 환경에 낯설어하며, 창백하고 여위었으며 마음이 가난한 듯한 모습의 알렉세이. 이런 황태자의 자태는 서구 문명에 맞서는 러시아의 기독교적 영성을 상징한다.

19세기 중엽 러시아에는 프랑스혁명에 영향을 받은 또 하나의 서구화 개혁가들이 등장했다. 혁명은 신분제를 철폐하고 국왕을 단두대에서 처형하면서 국가의 주인을 군주

와 귀족이 아닌 국민으로 세웠고, 동시에 급속한 세속화의 물결도 일으켰다. 서구주의자라 불린 젊은 지식인들은 러시아도 프랑스혁명의 가르침을 따라 변화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들에게 러시아 문명의 종교성은 후진성의 소산, 그리고 민중을 황제 체제에 맹목적으로 충성하게 만드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일 뿐이었다. 서구주의자들은 이런 맹목적이고 '무지'한 민중을 계몽하는 꿈을 꾸었고, 일부는 폭력까지 불사하는 혁명가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은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고립되었다.

아마도 러시아 화가 중 대외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인물인 레핀(И. Е. Репин)의 대표작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는 혁명가와 당시 '평범한' 러시아 사람들 사이의 괴리를 포착한다. 혁명 활동으로 경찰에 쫓기며 잠적했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돌아왔다. 가족은 그를 따뜻하게 반길 수만은 없다. 걱정, 난처함, 의아함 등의 표정들이 지배적이다. 아버지를 처음 본 듯한 막내딸은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의 감정만을 드러낸다. 이런 서구주의적 혁명가들은 훗날 러시아혁명의 성공 덕에 러시아 지식인의 전형으로 기억되곤 했지만, 사실 당대에는 레핀의 묘사처럼 외로운 존재들이었다. 훨씬 더 많은 러시아 사람들은 프랑스혁명을 기독교적 영성에 대한 위협, 즉 적그리스도의 등장이라 생각했다. 이런 분위기를 대표하며 러시아 문명 본연의 성격을 더 잘 담고 있는 지식인이 어떠했

는지를 알고 싶다면, 이동파 화가들의 수도사와 수녀 초상화들을 참고하는 것이 낫다. 그중 수리코프의 <수도사의 초상>은 낭만적인 혁명을 꿈꾸기보다는 러시아 사회에서 기독교적 영성을 지키고자 하는 소박한 지식인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드러낸다. 그림 속 인물의 여윈 얼굴은 세속적인 사람의 눈에는 답답해 보일 정도의 진지함과 경건함을 담고 있다.



바실리 수리코프, <수도사의 초상>, 움스크 미술관

러시아는 이동파의 시대를 지나 20세기 초 전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 소비에트 러시아가 되었다. 그 직후 출범한 소련은 냉전 시대 미국 및 서유럽과 대립했지만, 실상 러시아 사회를 그 어느 때보다 서구화시켰다. 20세기 말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는 자본주의의 물결까지 받아들이며 세속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하지만 러시아 문명의 영적인 소박함은 길고도 추운 겨울에도 미술관에 길게 줄을 서서 자기 문명의 예술을 감상하며 서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러시아 민중의 일상 속에 남아 있는 듯하다. 그들 덕에 러시아 문명의 본질적 성격은 계속해서 왜곡되지만은 않을 것 같다. 🌍

노경덕(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일리아 레핀,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 트레차코프 미술관

떠난 자를 위한 기도



<감로도>, 18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언제부터인가 쓸데없는 공상이라며 가볍게 넘기던 사후 세계에 대해 달리 생각하게 된다. 근데 그게 어이없게도 꽤 현실적이면서 구체적이다. 살아 있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어떤 세계가 실제로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막연한 세계에 대한 두려움은 공포로 다가온다. 어린아이처럼 원초적인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천국과 지옥이란 세계가 있기는 한가? 죄를 지으면 정말 지옥에 가나? 행동뿐 아니라 말, 심지어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죄라면 어느 누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어떤 지옥은 죄인의 혀를 빼내 소로 하여금 갈게 하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심장을 빼내어 야차가 먹으며, 어떤 지옥은 펄펄 끓는 가마솥에 죄인을 넣어 삶으며, 어떤 지옥은 불길로 죄인을 불사르며, 어떤 지옥은 꿈꿨던 산에 갇혀 추위에 떨게 하며…… 지장보살의 지옥 소개는 이후로도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된다. 끔찍한 묘사에 상상만으로도 몸서리가 쳐진다.

그렇다면 한번 지옥에 떨어진 영혼은 영원히 그곳을 벗어날 수 없을까? 감로도에서 답을 찾는다. 감로탕, 감로왕도라고도 불리는 감로도에는 천도 의식을 그린 그림으로, 지옥에 빠진 죽은 이의 영혼이 부처가 베푸는

감로를 받아먹으면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 극락으로 갈 수 있다는 드라마틱한 내용을 담고 있다. 눈이 번쩍 뜨인다. 이보다 더 강력한 위로가 있을까. 단, 반드시 살아 있는 사람들의 지극한 정성과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 감로, 단 이슬, 부처의 가르침을 의미한다. 그림에 붙여진 이름이 기막히게 적절하다. 한 화면에 삶과 죽음과 그 이후 세계를 구름이나 산악을 경계로 구분하면서 다른 세계를 서로 연결시켜 전개한 방식이 특이하다.

화면 중앙의 괴기스러운 모습이 우선 눈길을 끈다. 붉은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활활 타는 불꽃에 휩싸인,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생명체, 아귀다. 두 손으로 빈 그릇을 받쳐들고 먹을 것, 즉 감로를 애타게 구하고 있다.

아귀는 목이 바늘처럼 가늘어 음식을 삼킬 수가 없고 음식을 먹으려는 순간 그 음식이 불로 변해 항상 굶주림과 목마름에 허덕인다. 아귀 주위의 시뻘건 불길은 먹으려고 손을 뻗치는 순간 불로 변해버리는 음식을 상징한다. 이런 아귀가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이 감로다. 감로를 먹은 아귀는 더 이상 아귀가 아니다. 어쩌면 아귀는 육도를



<감로도> 부분, 18세기, 국립중앙박물관

헤매는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든 중생을 일컫는 게 아닐까.

감로도에는 아귀도에 빠진 어머니의 영혼을 구한 목련존자의 사연에서 시작된다. 신통력이 뛰어난 목련존자가 삼라만상을 살펴보다 자신의 어머니가 아귀도에 빠져 음식을 먹지 못해 피골이 상접한 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감로탕> 상단, 1692, 청룡사



〈감로왕도〉 시식단 부분, 남장사

보게 된다. 가슴 아파하며 음식을 가져가 어머니께 드렸으나 그 음식은 어머니의 입에 들어가기도 전에 뜨거운 불길로 변해 밥알 한 톨도 삼키지 못한다. 괴로운 목련존자는 부처에게로 달려가 어머니를 구할 방법을 묻는다. 이에 부처는 백중인 음력 7월 15일에 오곡백과를 정성스레 차려 시방 스님들에게 공양하라고 가르쳐준다. 목련존자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감로도에는 육도윤회의 굴레에서 고통 받고 있는 영혼이 살아 있는 자가 마련한 의식과 기도를 통해 극락으로 갈 수 있다는 내용을 그림으로 풀어 죽은 자를 위한 남은 자의 기도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깨닫게 한다.

감로도에는 상·중·하 3단으로 구성하여 육도 중생이 시식 의례를 거쳐 극락으로 천도되는 과정을 표현한다. 상단에는 고통에 빠진 영혼들이 시식 의례를 통해 부처의 가호 아래 극락왕생하는 장면을 묘사한다. 극락의 아미타불 일행과 칠여래 또는 오여래가 지옥에서 벗어난 영혼을 맞으러 오는 모습, 인로왕보살이 천의를 휘날리며 번을 들고 극락길을 인도하는 모습,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모습 등이 표현된다. 경기도 안성 청룡사의 감로도에는 이상단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감로를 베푸는 주제를 더 부각시키려 한 의도가 아닌가 싶다.

중단에는 실제로 거행되는 천도재의 장면을 그리는데 그릇에 수북이 담긴 백미, 과일, 향, 꽃 등 갖가지 공양이 놓인 재단과 의식을 행하는 모습이 표현된다. 성대하게 차려진 시식단을 중심으로 천인, 왕후장상, 상복 차림의 재를 올리는 사람들, 의식을 진행하는 스님들이 그려져 있고, 시식단 아래에는 아귀가 혼자 또는 한 쌍으로 그려진다. 특이하게도 국립중앙박물관의 〈감로도〉에는 빈 그릇을 들고 울부짖는 아귀의 모습이 크게 강조되어 있다. 그림 밖으로 튀어나올 기세다. 먹을 것을 애타게 찾는 듯 통방울처럼 동그랗게 뜬 눈에서 극심한 고통과 함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감로를 구하는 간절함이 그대로 전해진다.



〈감로도〉 부분, 18세기, 국립중앙박물관

감로도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인간 사회의 다양한 삶을 파노라마로 펼쳐 놓은 하단이다. 대장간에서 일하는 모습, 모내는 모습, 두세 사람이 용기종기 모여 앉아 술잔을 놓고 환담하는 모습, 굶는 무녀와 옛장수 등 당시 서민들의 일상사를 그대로 화면에 옮겨 담았다. 한편 의지할 자식이 없어 죽은 노인,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이, 아이를 낳다 죽은 산모, 우물에 빠져 죽은 이, 매 맞다 죽은 이, 침을 잘못 맞아 죽은 이 등 곳곳에서 벌어지는 인생 최악의 순간도 함께 담았다. 감로도에 표현된 다양한 생활상은 풍속과 관련된 장면이 많아 마치 풍속화를 보는 듯하다.

19, 20세기에는 풍속적인 요소가 더욱 풍부해지면서 변천하는 시대상을 볼 수 있는데 서울 돈암동의 흥천사 〈감로도〉(1939)가 이채롭다. 기존 감로도의 구성을 기반으로 하면서 근대 서양화 기법으로 양장 차림의 남녀, 공공 언 강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모습, 신식 건물 사이로 지나가는 전차, 코끼리가 묘기를 부리는 서커스 장면 등 근대화된 당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구름이나 푸른 산을 경계로 장면을 구분했던 종래와는 달리 하나의 액자에 여러 장의 사진을 붙여 넣은 것 같은 방식이 참신하다. 비교적 최근에 제작된 청양 장곡사의 〈감로도〉는 5.18 민주화 운동,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세월호와 소녀상 등 오늘날의 아픔을 담고 있다.



〈감로탱〉 부분, 흥국사



문성·병문, 〈감로왕도〉 부분, 1939, 대한불교조계종흥천사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끊이지 않는 사고, 팬데믹으로 인한 뜻하지 않은 억울한 죽음은 지금도 여전하다. 감로도의 화면 속 장면은 현재 진행형이다. 삶과 죽음, 현실과 지옥, 그 경계가 모호하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통의 굴레라면 지금 이곳에도 감로가 듬뿍 뿌려지길 기도한다.

이미 떠난 자와 아직 남은 자를 위하여. 🌍

계운애 회원



〈감로도〉 부분, 장곡사

우리네 삶같은 남산의 부처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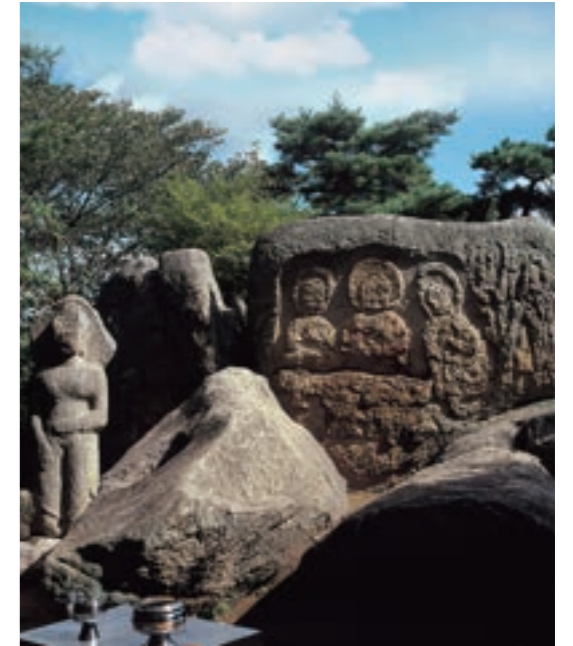
불곡 마애여래좌상

언젠가 그 많은 경주의 볼거리를 다 생략하고, 오롯이 남산만 보고 오는 경주 여행을 하리라는 작은 버킷리스트를 이번 봄에 이루었다. 2박 3일 간의 이 버킷리스트를 20년 여행 동반자 네 분과 함께 이루었다. 신 경주행 KTX 열차 안에서 가이드를 자처한 나는 첫째 날은 동남산 일대를, 둘째 날은 서남산 일대를, 그리고 마지막 날은 그 외의 경주 남산 주변 유적과 유물을 본다는 계획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남산의 그 많은 유물과 유적 중에서 무엇보다도 남산의 부처님들을 제대로 보리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첫째 날 답사는 불곡에서부터 시작했다. 신라에서 가장 오래된 석불로 꼽히는 불곡 마애여래좌상은 불상이 많은 계곡이라 해서 이름 붙여진 불곡의 조금 경사진 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다. 자그마한 자연석 감실 속에서 툭 볼거진 눈두덩이, 뭉툭한 코, 두툼한 입술 그리고 조금 구부러진 어깨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듯, 웃는 듯 앉아 계신다. 어떤 사람은 이 부처님을 보면서 신라인이 바위에 부처님을 새긴 것이 아니라, 바위 속의 부처님을 찾아냈다고 표현하였다. 주변의 숲과 바위와 잘 어울리는 부처님의 부드러움과 자연스러움은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이 조각상을 미술관에 전시한다면 관람객들은 저마다의 할머니를 생각할 것이다.

초가집 검게 그을린 부엌에서 머리에 흰 수건을 아무렇게나 두르고 일하다가 땀을 닦으면서 딸과 손주를 반갑게 맞이하는 외할머니 말이다. 시집간 딸의 투정도, 버릇없는 손주의 장난도 모두 받아 주면서 정성을 다해 소박하지만 넉넉하게 저녁상을 차려주시는 우리들의 외할머니. 불곡 마애여래좌상을 보면서 사진 촬영을 열심히 하는 우리 여행 동반자들의 얼굴에도 세월이 가져다주는 편안하고 부드러운 외할머니의 미소가 보이는 것은 나의 착각이었을까?

불곡 마애여래좌상 할머니를 뵈고 다시 탐곡으로 올라갔다. 조금은 가쁜 숨을 쉬면서 탐곡 마애불상군이 조각된 큰 바위에 다다랐다. 바위에는 ‘숨은그림찾기’를 해야 할 만큼 많은 그림들이 새겨져 있었다. 북쪽 면에는 9층과 7층의 두 목탑이 있고, 가운데 부처님이 계시고, 탑 위에는 비천이 날고 있다. 동쪽 면에는 부처님과 보살, 비천상이 있고, 부처와 보살의 아래에는 공



탐곡 마애불상군 남쪽면 삼존불 ©문화재청

양을 올리는 스님 상도 있다. 서쪽 면에는 부처님 한 분과 비천 두 구가 있다. 그런데 나에게 가장 친근하게 다가온 것은 남쪽 면이었다. 남쪽 면의 바위는 40cm 정도의 틈이 벌어져 있는데, 오른쪽에 삼존불상이 있고 왼쪽에 상체만 보이는 나한상이 조각되어 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불상 한 분이 홀로 서 있다. 삼존불은 웅기종기 모여 속닥속닥 수다를 떨고 있는 여고생 같고, 홀로 계신 부처님은 이 철없이 밝은 여고생들을 걱정하면서도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는 여선생님 같다. 참, 낙엽만 굴러도 웃는다면 저런 여고 시절이 나에게도 있었지...

있고 있었던 여고 시절을 생각하는 동안 보리사에 도착하였다. 보리사는 남산 일대에서 가장 큰 절이다. 그리고 보리사 왼편에 미륵굴 석조여래좌상이 모셔져 있다. 이 부처님을 본 동반 모두의 한결같은 느낌은 “정말 잘 생겼다.”였다. 박물관이나 전시관처럼 닫힌 장소가 아닌 노천에 있는 부처님 중에 이처럼 잘생긴 부처님은 없는 것 같다. 잘생겼다는 것은 젊음을 바탕으로 뽐



미륵굴 석조여래좌상

어저 나오는 당당함이다. 이 부처님은 젊고 당당하다. 이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가늘게 뜨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눈, 자비로우면서도 단정한 미소의 입, 결가부좌를 하고 있는 단단한 다리, 항마촉지인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수인 그리고 가지런하면서 단정하게 흘러내리는 옷자락이 아닐까? 거기에 힘센 복련, 팔각 모난 중대석, 탐스러운 앙련이 조각된 대좌가 당당함을 더한다. 화려하면서도 유연한 화염문, 여섯 송이의 연꽃 장식, 7구의 화불化佛이 조각된 광배 또한 당당함을 배가시킨다. 우리에게도 저런 젊음과 당당함과 자신감이 넘쳐흘렀던 시절이 분명 있었을 것이다.

둘째 날 코스는 이번 남산 답사의 하이라이트인 삼릉에서 용장까지다.

배동 석조여래삼존입상은 흠어져 땅속에 묻혀 있던 것을 1923년 지금의 자리에 모아서 세운 것이라고 한다. 세분 부처님의 첫인상은 모두 통통하고 천진스러운 아기들 같아 보였다. 그중에서도 가운데 본존불은 아기 미소가 가장 확실하게 보인다. 본존불의 머리는 3단으로 이루어진 상투 모양을 하고 있으며, 광배라기보다는 마치 베일 같아 보이는 뒷장식이 있다. 얼굴은 사각형이고, 뺨은 입안에 사탕을 문 듯 뽕뽕하게 부풀어 있다. 눈두덩이는 두툼하고 눈은 가늘어서 자연스럽게 눈웃음을 짓고 있다. 코는 짧고, 입은 꼭 다물었는데 양 끝을 깊게 파서 그 미소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 부처님에게서는 돌잔치 상에서 복건幅巾을 쓰고 겨우겨우 무언가를 잡아 입 안에 넣으며 만족해하는 아기의 천연 무공해 미소가 보인다. 이런 아기의 무공해 미소를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미소를 따라 짓게 되는 것처럼 이 부처님은 우리 모두를 빙그레 미소 짓게 하였다.

삼릉부터 용장계곡을 걸으면 많은 부처님들을 만날 수 있다. 부처님들은 세월의 풍파를 이기지 못해 잘리고, 깎여 있다.



배동 석조여래삼존입상



용장사곡 삼층석탑



삼릉계곡 석조여래좌상 ©문화재청



용장사곡 석조여래좌상

남산의 매력 중의 하나는 이렇게 세월의 풍파를 함께 한 부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삼릉계곡을 올라가다가 솔숲 속에서 유난히 하얗게 보이는 부처님 한 분을 만날 수 있다. 순백의 화강암으로 만든 삼릉계곡 석조여래좌상은 가지런한 옷 주름, 굳게 다문 입술로 참하면서도 단정하게 앉아 있다. 화려한 연화대석과 부드러운 넝쿨무늬와 힘찬 불꽃무늬의 광배는 이 부처님의 한때 위상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세월을 어찌랴, 광배는 조각조각이 나고, 부처님의 상호 또한 어울리지 않게 성형을 했으니 말이다. 우리가 아무리 맞서보아도 세월은 모든 것을 변하게 한다. 웬지 삼릉계곡 석조여래좌상을 측은하고 안쓰럽게 보면서 정상 방향을 향해 길을 재촉해 본다.

드디어 용장사곡 삼층석탑에 도달했다. 이 탑은 서 있는 위치가 모든 가치를 대변한다. 탑에서 보는 조망과 바위산 전체를 기반으로 삼고 있다는 좀 과한 이야기는 남산 답사의 힘듦을 모두 상쇄시킨다. 조금 아래에 목 잘린 부처님이 한 분 앉아 계신다. 용장사곡 석조여래좌상은 둥근 삼륜의 대좌에 앉아 있다. 삼륜의 대좌는 북 모양의 중대석을 얹고 그 위에 쟁반 모양의 둥근 반석을 놓았다. 화려한 연꽃 방석에, 옷 주름은 물 흐르듯 굽이친다. 오른손은 선정인, 왼손은 항마촉지인을 하고 결가부좌 자세를 취하고 있다. 시리도록 청명한 푸른 하늘과 꿈처럼 흰 구름을 배경으로 최고의 자리에 높다랗게 당당히 앉아 있는 목 잘린 부처님이라... 가슴이 먹먹해온다.

답사를 끝내고 숙소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정류장의 작은 가게에서 도토리 묵사발과 막걸리를 맛있게 먹었다. 조금 붉어진 얼굴로 도반들을 본다. 2001년 실크로드 여행 이후 머리술도 많이 없어졌고, 다치기도 했고, 아프기도 했다. 이제 세 명 정도는 합쳐져야 20년 전 여행지와 동행자를 정확하게 기억해 내지만 그냥 불곡 마애여래좌상 부처님처럼 늙어가면서 같이 여행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

박상혜 회원

즐거로운 국악 생활
국립국악박물관



김홍도, <춤추는 아이>, 『단원풍속도첩』, 국립중앙박물관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몸은 얼송덜송,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누에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동아 같은 뒷발로 양 귀 찌어지고,
쇠 낫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모래를 차르르르르 흘리며
주홍 입 짝 벌리고 워리령 허는 소리...

리듬 타는 소리꾼들과 낯선 춤사위로 신명난 요상한 차림새의 춤꾼들, 그룹 이날치와
엠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의 협연을 보셨습니까?
의성어, 의태어가 듬뿍인 노랫말은 우리말인데 장구나 북소리가 아닌 밴드 음악, 거
기다 갖이나 저고리에 선글라스 끼고 운동복 입고... '이것도 우리 것인가?' 고개를
가웃하면서, '국악의 변신인가 봐!' 새로워서 반가웠습니다.
조선 후기의 판소리계 소설 별주부전에서 호랑이가 나오는 대목을 재해석한 노래 '범
내려온다'에서는 '랩과 타령의 경계가 무너지며, 전통과 현대의 구분이 사라진다.' 합
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가까운 음악, 더 깊은 이해, 더 즐거운 놀이'

오랜 옛날에는 범의 놀이터였을 우면산 자락에 자리한 국립국악원 국악
박물관. 국악의 기원과 역사는 어떠할까?, K-music에서 국악의 자리는
어디일까?... 답을 기대하며 찾아갑니다.
1995년 문을 연 국내 유일의 국악 전문 박물관은 2019년 듣는 전시의
기능을 강화하며 상설전을 개편하였습니다. 전시 브로슈어의 안내대로
국악세계를 알아보려 합니다.

제1전시실 <국악뜰>에서는 궁중잔치가 고품질 음향과 영상으로 펼쳐
잡니다. '진연, 120년의 시간을 잇다'는 고종 즉위 40년인 1902년 덕수
궁에서 열린 마지막 잔치의 부분 재연 영상입니다. '예禮로 절도 있게,
악樂으로 조화롭게', 조선의 시대정신이 가시화된 현장으로 시간여행을
갑니다. 삼면에서 들리는 연주 소리와 화려하고 장중한 군무는 아담한
전시실이 궁궐의 뜰처럼 깊고 너른 곳으로 느껴지게 했습니다.

제2전시실은 <소리품>입니다. 비, 바람, 파도, 매미 같은 자연과 생명의
소리와 다듬이질 소리, 장작 타는 소리 같은 삶의 소리들을 영상 없이
오로지 귀로만 들도록 꾸며진 곳입니다. '의미 있는 떨림과 움직임(波動)'이
음악이라면 <소리품>에는 음악 이전의 소리들이 가득합니다.
소리가 소환하는 풍경들이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이어집니다. 상상력은
이 땅 이곳저곳에 깃들인 어제와 오늘을 훑아보게 했습니다. 우리네 감
성을 조율하는 우리 음악의 토대가 한반도의 소리임을 자연스레 깨닫게
됩니다.

제3전시실은 <악기실>입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풍요를 기원하며
농사를 관장하는 자연신에게 제를 지낼 때 소리를 담는 그릇, 악기는 필
수였습니다. 고구려 고분벽화나 신라 토기를 장식한 토우에는 모양새와
쓰임새를 짐작케 하는 다수의 악기가 있습니다. 나무, 돌, 뿔 같은 자연
의 재료들을 다듬어 두들기고, 불고, 줄을 튕겨서, 이 땅의 소리들이 악
기로 발현되었습니다. 입술 사이에 물거나, 원통형으로 말아 붙여 연주
하는 풀피리(草笛)나 소리에 취구를 만들고 입김을 넣으며 입술의 진동
으로 연주하는 나각, 엮드린 호랑이 모양인데 등줄기에 새겨 박은 톱날



임인진연도 병풍 부분,
국립국악원(National Gugak Center)



박, 국립국악원(National Gugak Center)

을 채로 긁어서 드르르 소리를 내는 어. 재료, 모양, 연주 법 등이 제각각인 악기들이 내는 소리는 안내 큐알코드 로 접속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음악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일상의 행위와 소리를 생각 하다, 자동차의 경적이나 공사현장의 발파 같은 소음도 ‘도시의 교향악’으로 풀어낸 영화들을 떠올렸습니다. 복원된 옛 악기를 따라 시간적으로는 고대까지, 두들겨 소리 내는 해녀들 의 물장구를 따라 공간적으로는 제주도에 다다른 여정이 흥미롭습니다.

제4전시실은 <문헌실>입니다. 악보, 무보, 악서, 의궤, 도병 등의 궁중기록과 가객들이 남긴 노래책인 『청구영언』, 『가곡원류』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음의 고저, 장단을 표시하는 여러 기보법 중 하나가 우물 정자 모양으로 칸을 질러 그 개수로 음의 길이를 나타내는, 세종대왕이 창안한 정간보 입니다. 오선지와 음표가 익숙한 눈에, 옛 악보의 첫인상은 그저 가로세 로 낯말퍼즐입니다. 악기 소리를 흉내 낸 의성어인 구음口音으로 음높이 와 연주법을 나타낸 육보에 손장단을 썼던 학창시절이 기억납니다. ‘덩· 덕·쿵·기덕·더러러’, ‘슬기둥·덩·둥·당·둥·당’, ‘청·흥·둥·당·둥·징·땅·지·짱· 칭·쫑·챙’. 입소리를 반복하니 우리의 쟁말놀이(tongue twister) 같아집니 다. 어느 악기 소리일지 맞춰보는 재미도 있습니다(장구, 거문고, 가야금).



물장구, 국립국악원(National Gugak Center)

제5전시실은 <아카이브실>입니다. 1877년 에디슨이 발명한 축음기와 함께 만들어진 원통형 실린더와 릴테이프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제 음원音源이란 디지털 신호를 통해 재생되는 소리로 정의됩니다. 어느새 무형으로 존재하는 음원에 친 숙해져서, 손으로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아날로그 타입 ‘소리의 집’이 되레 신기하게 느껴지니 기술의 변화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어, 국립국악원(National Gugak Center)

한민족 최초의 음원인 미국 인류학자가 녹음한 한국인 유학생이 부른 노래, 제1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의 포로가 된 러시아 이주 한인의 노래... 소리매체의 변천을 보여주는 전시품은 지난 시절 삶의 애환까 지 전합니다.

1968년 녹음된 제주민요나 서양인 국악학자인 해익만의 슬라이 드 필름에 담긴 굿, 대취타, 정재 공연을 듣고 볼 수 있습니다. 국 악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국악 관련 자료도 수집하고, 평생을 한국 전통음악과 무용을 알리는 데 앞장섰던 해익만(Alan C. Heyman,

1931~2014). 한국전 참전 시 들었던 태평소 소리가 그와 국악의 인연을 시작케 했답니다. 근래 궁궐 앞에서는 조 선시대 왕의 행차나 군대의 행진에서 쓰였던 대취타가 시 연됩니다. 대취타의 선율을 홀로 맡은 태평소는 강인하면 서도 애절한 소리를 냅니다. 그 매력이 이방인의 ‘심금을 울린’ 것인가 생각해봅니다.

제6전시실은 <명인실>입니다. 국가음악기관인 장악원 과 지방관아 소속 음악인부터 민간에서 탈놀이나 판소리 를 연행한 광대나 소리꾼에 이르기까지, 20세기는 굴곡 의 시기였습니다. 전통예술의 명맥을 지켜낸 예인들의 후 손과 제자들이 기증·기탁한 유품들이 지난 시기 예인들의 담과 눈물을 증언합니다.

2022년 전통예술의 경계를 확장시킨 젊은 예인들의 활약 상을 찾아봅니다. 외국 극작가의 작품을 번안, 각색하여 우리화한 창작 판소리나 재즈를 접목한 경기 민요 같은 실험적인 복합장르가 국제적인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 것은 좋은 것이여’, 전통예술의 원형을 보존하려는 노력과 발맞추어 나아간다 싶습니다.



속악원보, 국립국악원(National Gugak Center)

<명인실>을 나서면 ‘소리로 꾸며진’ 국악 놀이터입니다. 물체의 두께·길이·장력에 따라 달라지는 음높이, 재료에 따라 달라지는 음색 등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야금 줄을 타고, 북채로 북을 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느라 분주합니다.

“얼씨구”, “좋다” 마음속 추임새를 넣으며 박물관에서의 ‘국악수업’을 마무리했습니다. 🎧

문정원 회원



원통형 왁스 실린더, 베를린 민족학박물관 포노그램 아카이브, 국립국악원(National Gugak Center)



가방식 실린더 유성기, 국립국악원(National Gugak Center)

2023년 국립중앙박물관회 사회교육 프로그램 안내

46기 특설강좌

1977년부터 40년 넘게 진행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박물관 강좌입니다. 특설강좌를 수료한 후 연구강좌·테마강좌 등을 한층 심화된 주제와 내용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기간: 2023년 3월~11월

▶시간: 화요일 또는 목요일 매주 1회 14시 ~ 17시/ 8월 휴강

과목	강사	
한국박물관사	장상훈(국립진주박물관)	
한국고대사	윤선태(동국대학교)	
고려시대사	채웅석(가톨릭대학교)	박종기(국민대학교)
조선시대사	한명기(명지대학교)	강문식(숭실대학교)
테마 중국사	조영현(고려대학교)	
중국도자	방병선(고려대학교)	장남원(이화여자대학교)
한국도자	전승창(아모레퍼시픽 미술관)	이준광(삼성미술관 리움)
한국사상사	조장연(성균관대학교)	진성수(전북대학교)
한국건축	손신영(한국미술사연구소)	신희권(서울시립대학교)
서양건축	임석재(이화여자대학교)	
18~19세기 서양미술사	정은진(이화여자대학교)	이화진(한국항공대학교)
서양근현대미술사	강은주(이화여자대학교)	
전시실교육	전시 담당 학예연구사	
중국회화	장준구(이천시립월전미술관)	장진성(서울대학교)
한국산수화	이태호(명지대학교)	유재빈(홍익대학교)
한국풍속화	백인산(간송미술관)	유미나(원광대학교)
한국근현대미술사	조수진(성신여자대학교)	
종교문화	유요한(서울대학교)	
생물인류학	우은진(세종대학교)	김재현(동아대학교)
고지도	장상훈(국립진주박물관)	
이집트 문화	유성환(서울대학교)	
인도 불교조각	임영애(동국대학교)	주수완(우석대학교)
중앙아시아 미술	한지연(동국대학교)	임영애(동국대학교)
중국 불교조각	최선아(명지대학교)	배재호(용인대학교)
한국 불교조각	심영신(숭실대학교)	송은석(동국대학교)
인도 문화와 미술	구하원(서울대학교)	
동남아시아 문화	소병국(한국외국어대학교)	강희정(서강대학교)
중동-이슬람 문화	이희수(한양대학교)	
박물관 유물관리	권혁산(국립중앙박물관)	

* 사정에 따라 강사 및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모집 안내

모집인원: 400명(화요일 200명, 목요일 200명)

모 집 일: 2023년 1월 9일 월요일 9시부터 선착순 모집

연구강좌

1980년대 특설강좌를 수료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스터디 모임에서 시작되었으며 여러 학문 분야의 저명한 대학교수와 관련 전공학자를 초빙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강좌 1** 첫째·셋째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 15회 진행
격변기에 돌아보는 동아시아 국제관계사 한명기(명지대)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국, 중국, 일본 사이에서 펼쳐진 관계의 양상과 외교의 실상을 한반도를 중심에 놓고 고찰한다. 그 같은 성찰을 통해 여전히 격동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제관계 속에서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탐색한다.
- 연구강좌 2** 첫째·셋째주 화요일 오후 14시~16시 / 15회 진행
불교미술의 세계 : 조각과 회화 최선주(전 경주박물관장)
정명희(국립중앙박물관)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 된 이후 시대와 지역에 따라 많은 불상이 조성되고 그림을 그렸다.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앙적인 염원이 불교조각과 회화에 어떠한 형식으로 담겼는지를 파악하여 한국 불교미술의 흐름을 이해하고자 한다.
- 연구강좌 3** 둘째·넷째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 15회 진행
유럽의 박물관 미술관 산책: 프랑스 파리 이현(미술사 연구소)
 미술관은 한 나라의 문화의 척도이자 하나의 소유주로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대변한다. 유럽 미술관의 역사와 소장품, 최근의 전시를 살펴 다양한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도록 하며 다양한 컬렉션과 전시로 유명한 파리의 박물관·미술관의 세부적인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 연구강좌 4** 둘째·넷째주 화요일 오후 14시~16시 / 15회 진행
인물로 보는 한국미술 100년 정하윤(이화여대)
 한국미술을 이끌어온 주요 미술가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근현대 미술을 살펴본다. 각 작가의 삶과 작품은 물론, 20세기 한국미술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서양 및 동아시아의 다른 미술 경향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미술을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강좌 5** 첫째·셋째주 수요일 오전 10시~12시 / 15회 진행
냉전의 역사 노경덕(서울대)
 냉전은 20세기 후반 미국과 소련, 양대 초강대국의 긴장 상태를 말한다. 하지만 이는 이 두 나라뿐만 아니라 각 진영에 속해 있던 전 세계 나라들의 정치, 경제, 문화적 변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더욱이 냉전과 동시에 진행되었던 탈식민화는 세계 국제정치를 지배했으며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다. 그 역사를 살펴 오늘날의 세계를 객관적으로 이해해 보고자 한다.
- 연구강좌 6** 둘째·넷째주 수요일 오전 10시~12시 / 15회 진행
서울, 건축과 도시의 역사 박희용(서울시립대)
 역사 문화도시 서울의 변화과정을 상징적인 건축물과 도시공간의 재편 등 도시 건축적인 시각으로 살핀다. 아울러 근대기 서울의 건축과 도시의 역사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의 상징적인 공간과 건축물을 역시간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살펴보는 방식으로 현대도시 서울에 내재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강좌 7 첫째·셋째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 15회 진행
빛은 동방으로부터: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모든 것 유성환(서울대)

메소포타미아는 문명의 발상지로서 이후 서양 문화의 뿌리가 되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본 강좌는 메소포타미아의 역사와 문화를 형성한 주요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의 역사와 문화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보는 야심 찬 프로젝트이다. 각종 사료와 유물, 그림 자료 등을 통해 복잡하게 느껴지는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역사를 한눈에 살피는 기회가 될 것이다.

연구강좌 8 둘째·넷째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 15회 진행
숨겨진 우리 역사: 북방 유라시아의 유물을 찾아서 강인욱(경희대)

고조선, 부여, 옥저, 음루 그리고 잊혀진 우리의 북방 역사에 대한 고고학자의 최신 연구를 소개한다. 신라 금관과 백제에서 발견된 부여의 유물, 그리고 초원으로 전해준 고구려의 마구까지 고고학이 전하는 역사에는 숨겨진 우리 역사 속 북방 코드를 찾아본다. 만주 지역을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갈등, 그리고 동북공정의 여파도 살펴봄여 우리의 북방사를 둘러싼 치열한 연구의 현장으로 초대한다.

모집 안내

모집인원: 1200명(강좌명 100~200명)
 모집대상: 특설강좌를 수료한 회원
 모 집 일: 2023년 1월 10일 화요일 9시부터 강좌별 선착순 모집

▶ 테마강좌

2021년부터 새롭게 개설한 테마강좌는 기존의 특설·연구강좌와 차별화하여 하나의 주제를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강좌입니다.

테마강좌 1 3월~7월, 매주 수요일 오후 14시~16시 / 15회 진행
유럽, 도자기 여행: 서유럽 조용준(저널리스트)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5개국의 도자 문화를 알아본다.

테마강좌 2 9월~11월, 매주 수요일 오후 14시~16시 / 12회 진행
유럽, 도자기 여행: 북유럽 조용준(저널리스트)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 5개국의 도자 문화를 알아본다.

테마강좌 3 3월~5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 12회 진행
두 명의 예술가 I 전원경(세종사이버대)
 매주 한 명의 화가와 한 명의 작곡가를 선정해 그들의 예술 세계를 비교하고 음악과 미술 작품이 담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심도 있게 분석한다.

테마강좌 4 9월~12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 12회 진행
두 명의 예술가 II 전원경(세종사이버대)
 매주 한 명의 화가와 한 명의 작곡가를 선정해 그들의 예술 세계를 비교하고 음악과 미술 작품이 담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심도 있게 분석한다.

모집안내

모집인원: 800명(강좌별 200명씩)
 모 집 일: 2023년 1월 11일 수요일 9시부터 강좌별 선착순 모집

▶ 정기답사

국립중앙박물관회 정기답사는 1975년 경주답사를 시작하여 매달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문화유산을 찾아가 직접 살펴보고 답사하고 있습니다.

날짜	답사지
3월 17일(금)	인천 강화도 (강화 고인돌, 전등사, 고려궁지, 보문사)
4월 21일(금)	강원 삼척 (죽서루, 해암정, 추암, 척주동해비)
5월 19일(금)	충남 서산 (서산마애불, 보원사지, 태안마애불)
6월 16일(금)	경북 영주 (부석사, 흑석사, 가흥동 마애삼존상)
7월 21일(금)	충남 부여 (대조사, 장하리삼층석탑, 무량사)
9월 15일(금)	강원 춘천 (국립춘천박물관, 근화동 당간지주, 청평사)
10월 20일(금)	전남 담양 (금성산성, 소재원, 개선사지 석등)
11월 17일(금)	전북 전주 (전동성당, 경기전, 금산사)
12월 15일(금)	강원 평창 (월정사, 상원사, 적멸보궁)

답사신청

신청 접수: 매월 첫째 주 월요일 또는 금요일 9시부터 선착순 모집
 신청 방법: 국립중앙박물관회 홈페이지(www.fnmk.org)

- ※ 국립중앙박물관회 사회교육은 유료 강좌입니다.
- ※ 연구강좌는 특설강좌를 수료한 회원만 가능합니다.
- ※ 사회교육 수강 신청은 홈페이지 및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자세한 사항은 국립중앙박물관회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및 프로그램 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2회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 공고

박물관의 학술 연구 사업을 장려하고,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2023년도 '제12회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 시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응모분야

- 고고학, 미술사학, 역사학, 보존과학, 박물관학(소장품 관리, 교육, 전시 등 포함)으로 구분하고 세부 내용은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미술, 민속 등으로 한정하고 세계문화는 우리문화와 연관된 부분으로 한다.
- 박물관 기획특별전 전시도록(전시기획, 디자인, 도판해설, 도록편집 등 포함)
- ※ 석·박사 학위논문 또는 각종 용역사업의 성과물은 제외.

2. 응모자격: 등록된 박물관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학예사 및 직원 또는 부서

3. 응모대상: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이 발간한 연속 간행물에 2022년도에 게재된 것. (연속 간행물은 공모 마감일 기준으로 3년간 3회 이상의 발간 실적이 있는 것) 2022년도 기획특별전 전시도록

4. 출 품 수: 1인 1편(전시도록은 박물관 부서명)

5. 공모 서류: 논문 - 신청서(소정양식), 박물관 확인증 사본, 간행물 1권, 논문자료 파일, 재직증명서, ※ 서류 등은 반환하지 않음 특별상 - 신청서(소정양식), 박물관 확인증 사본, 전시도록 1권

6. 접수기간: 2023년 2월 1일 ~ 2월 28일까지

7. 제출 방법: 전자우편(gomuseum@hanmail.net)으로 접수하고, 간행물은 우편(마감일 도착분) 및 방문 제출 ※ 주소: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내 교육관 101

8. 발표 및 시상: 2023년 5월 중(수상자는 국립중앙박물관회 누리집 게재 및 개별 통지)

9. 수상 및 부상

- 천마상 1명(일천만 원), 금관상 3명(오백만 원), 은관상 5명(삼백만 원), 특별상(전시도록) 2곳(삼백만 원)
- ※ 우수한 성과물 및 적정 범위의 논문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 최고 상 수상자가 없을 경우 다른 상의 수상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10. 참 조

- 특별상은 단체상으로 기관인 박물관 또는 부서명으로 신청
-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표절 논문은 수상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회로 문의(02-2077-9795)



백자 철채 인물 모양 명기, 이홍근실

두 손 가벼운 여행

정중한 손 예를 갖추고
 낮은 길 외롭지 않게
 하얀 옷 빛 밝혀
 환대하는 길동무들

그리움 꼭꼭 담은 배웅
 내세에도 복락을 누리길
 두 손 가벼이
 아름다운 여행하세요. 🌍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홍종인 초대 회장을 비롯하여 김일환, 이대원, 김상만, 김성진, 정진숙, 김영수, 유상욱, 유창종, 김정태, 신성수 회장을 거쳐 2020년 11월 윤재륜 회장이 취임했다.

회 장	윤재륜							
부 회 장	박은관 윤석민							
상임고문	신성수							
당 연 직	윤성용							
이 사	김석수	김신한	김현전	남수정	박선정	박선주	박진원	우찬규
	유승희	이옥경	정용진	조현상	최두준	허용수	홍정욱	
감 사	김교태 김재훈							
사무국장	이재범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특별·기부회원이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 및 심의를 거쳐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은 백두 백억 원, 청룡 오십억 원, 백호 삼십억 원, 주작 십억 원, 현무 오억 원, 천마 일억 원, 금관 오천만 원, 은관 삼천만 원, 청자 일천만 원, 백자 오백만 원, 수정 이백만 원 이상으로 한다.

백호회원 삼성전자	김교태 김남연 김승겸 김익환 김지연 김지원 김현전 도형태 류지훈 박병엽 박선정 박영주 박용윤 남수정 박진원 배동현 손창근 송치형 신성수 신현철 윤석민 윤장섭 윤재륜 이옥경 정용진 전재범 조현상 최신일 최두준 허용수 허운수 홍석조 홍정욱	김교태 김남연 김승겸 김익환 김지연 김지원 김현전 도형태 류지훈 박병엽 박선정 박영주 박용윤 남수정 박진원 배동현 손창근 송치형 신성수 신현철 윤석민 윤장섭 윤재륜 이옥경 정용진 전재범 조현상 최신일 최두준 허용수 허운수 홍석조 홍정욱	삼정회계법인 대표 (주)동훈 대표이사 서릉지주(주) 대표이사 의장 한세실업(주) 부회장 (주)컨셉 대표이사 한세엠케이(주)대표이사 히든베이호텔 사장 갤러리현대 대표이사 SB Investment 사장 팬택씨앤아이 대표이사 회장 대선제분(주) 대표이사 사장 아성다이스 부사장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사 컴투스·컴투스홀딩스·위지웍스튜디오 의장 가현문화재단 이사장 대신증권(주) 부회장 학교재 대표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서울가든호텔 사장 경신금융(주) 대표 일우재단 이사장 세아제강 사장 (주)삼익유니버스 대표이사 MashupAngels 대표 한미사이언스 사장 (주)교원인베스트 대표이사 선인자동차·고진모터스 대표이사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 사우스케이프 회장 우양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주)이도/한강에셋자산운용(주) 대표이사/의장 MIGHT&MAIN(주) 사장 진양자산관리주식회사 대표 GS건설 사장 회원	권지혜 김대환 김영명 김영희 김은혜 김재훈 김종한 남태훈 류방희 박경진 박선주 박영정 박지원 서재량 성래은 성필호 송 철 신병찬 심종현 유승희 유창종 윤현경 이상재 이정용 정은미 최웅신 함영준 홍정도 홍진기	아이에스지주 전무 (주)슈퍼리아·슈퍼리어홀딩스(주) 사장 (주)에울 이사장 회원 지알엠주식회사 상무 영풍제약 대표이사 (주)종합전기 대표 국제약품 대표이사 (주)풍산주택 회장 진주햄 대표이사 부사장 영은미술관 관장 V&S자산운용 상무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회장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부회장 (주)영원무역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광성기업(주) 대표 성문출판사 대표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장 한국가구박물관 부관장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관장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 동화약품 상무 (주)삼화택시 대표이사 가나아트갤러리 대표이사 블룸앤코 대표 (주)인팩 대표이사 (주)오뚜기 회장 중앙그룹 대표이사 사장 마리오 아울렛 상무	김영수 김영혜 김유석 김윤수 김인순 김재열 김정주 김종학 김지태 김태현 김태훈 김택진 김현강 노 석 노재연 담서원 류중희 문수희 문윤희 민경남 민병철 민준기 박범준 박선경 박재상 박재연 박정민 박주원 박준영 박해춘 방정오 배윤식 백진우 봉 옥 서동임 설윤석	국용수 구원경 구원희 구은성 국현영 권재현 권택환 김건호 김경영 김경희 김낙승 김녕자 김동관 김동준 김두식 김미원 김민수 김상윤 김성남 김성완 김세연 김영무 김영수 김영혜 김유석 김윤수 김인순 김재열 김정주 김종학 김지태 김태현 김태훈 김택진 김현강 노 석 노재연 담서원 류중희 문수희 문윤희 민경남 민병철 민준기 박범준 박선경 박재상 박재연 박정민 박주원 박준영 박해춘 방정오 배윤식 백진우 봉 옥 서동임 설윤석	닥터구의원 원장 (주)에스코홀딩스 과장 한성플랜지 이사 LS 네트웍스 이사 세기상사(주) 기획팀장 반도건설 부사장 신대양제지(주) 대표이사 (주)휴비스 미래전략주관 사장 회원 (주)피어나조경 대표이사 PWC-삼일회계법인 상무 (주)에울 명예이사장 한화 솔루선 대표이사 사장 키움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회원 (주)삼익악기 스페코 부회장 유리자산운용 부사장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스무디킹 Global CEO 동일고무벨트(주) 부회장 김&장 법률사무소 한국청소년연구소 이사장 제일화재 이사장 (주)행남 대표이사 지리산 문학관 관장 한익환서울아트박물관 관장 삼성경제연구소 사장 (주)NXC 이사 서양화가 화성피앤지주식회사 대표이사 성신양회 회장 두원중공업 부사장 (주)엔씨소프트 대표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상무 석플란트 치과병원 병원장 오로라월드 대표이사 오리온 수석부장 (주)퓨처플레이 대표이사 회원 아주호텔엔리조트 대표이사 회원 에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 대표이사 넌튼스 리(주)민병철교육그룹 파트너변호사 (주)에이치케이이디 코리아 부사장 용인대학교 총장 회원 성곡미술관 이사 (주)신원 부회장 회원 시몬스 에프씨 대표이사 본음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회원 (주)농심기획 상무 TV CHOSUN 전무 (주)한국체인모터 대표이사 (주)동성케미컬 사장 변호사봉옥법률사무소 변호사 회원 대한광통신 사장	손원탁 신연균 신영무 신창재 신춘수 양인집 양태회 어호선 오경희 오승민 오치훈 유동현 유영지 유진현 윤 관 윤보현 윤승현 윤일영 윤정선 이갑재 이규호 이기용 이만규 이미숙 이선진 이수경 이승용 이영순 이영자 이용균 이용진 이우성 이우일 이우현 이운경 이윤기 이인수 이재욱 이주엽 이준우 이지형 이철우 이학준 이해진 이 혁 임지선 임채현 장동진 장성진 장승준 양현재단 전영채 전윤수 정영수 정영해 정의선 정재호 정지인 정해인 조병순	(주)경동인베스트 부회장 아름지기 이사장 법무법인 세종 대표 (주)가은소사이터티 대표 (주)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이사 (주)진로 대표이사 사장 (주)비상교육 대표이사 VTI 파트너스 대표이사 회원 동일산업(주) 대표이사 사장 대한제강(주) 대표이사 사장 (주)인성 부사장 유금와당박물관 기획실장 (주)제이에스파트너스개발 대표 BRV Capital Management 호림박물관 이사 (주)뉴라이프전자 대표이사 영안주식회사 대표이사 (주)정보화학 대표이사 삼일회계법인 전무 (주)코오롱/코오롱글로벌 CSO/자동차부문장 열화당 대표 에머슨퍼시픽 대표이사 삼표산업 목금토갤러리 관장 삼보모터스 그룹 부사장 (주)에티넘파트너스 사장 한국미술협회 회원 회원 알스케어 대표이사 (주)경농 경영총괄 사장 SGC에너지(주) 사장 주식회사 유니드 전무 OCI 사장 남양유업 전문위원 스위스그랜드호텔 사장 수원대학교 이사장 전남일보 사장/발행인 대륙종합건설 상무이사 홍아해운 부사장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롯데쇼핑 총괄사장 크리스티코리아 대표 NAVER GIO 회원 보해양조(주) 대표이사 보해양조(주) 이사 (주)파워맥스 사장 글렌우드프라이빗에쿼티 상무 매일경제 대표이사 부회장 (사)한길봉사회 이사장 중국미술연구소 대표 은산그룹(ES Creators, ES Investor) 대표이사 회원 현대자동차 부회장 대호물산(주) 대표이사 현대무백스 전무 회원 성암고서박물관장	조연주 조영미 조재현 조희경 주신희 진재욱 차가원 차원희 천석규 최선목 최성환 최세훈 최원준 최원영 최인선 최재원 최창화·정혜숙 최혜욱 최훈학 한국도로공사 한석현 한영재 허정석 허진수 허치홍 현명환 현지호 호종일 호창성 홍범석 홍석표 홍원복,김근호 홍정국 홍정혁 홍진석 황인규 황정환 Joseph Bae KKR Asia Limited 대표 Mark Tetto TCK Investment management 공동대표이사	한솔케미칼 부회장 경동소재 대표이사 회원 (주)가은소사이터티 대표 (주)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이사 하나유비스 대표 (주)피아크건설 대표이사 차병원 그룹 상무 천일식품(주) 대표 (주)조광건설 회장 SK네트웍스 사업총괄(COO) (주)카카오/카카오베이 보험NewCo TF장 카이로스 인베스트먼트/현영알코비스 파트너/전무 L Catterton 상무 회원 SK(주) 부회장 회원 회원·자원봉사 (주)한국가구 대표이사 SM 엔터테인먼트 DJ/프로듀서 노루홀딩스 회장 일진홀딩스(주) 대표이사 SPC 파이크라상 사장 GS리테일 상무 회원 (주)화승코퍼레이션 대표이사 부회장 호성공업 회장 (주)더벤처스 대표이사 백미당 사업본부장 고려제강 사장/전략기획본부장 회원 BGF 사장 메가박스중앙(주) 대표이사 BGF 사장 남양유업(주) 상무 CNCITY에너지 대표이사 (주)케이지에프 전무
---------------------	---	---	--	---	---	--	--	--	---	--	---	---

금관회원	전 (주)STX 회장 경 원 권준일,구재선	은관회원 강원기	오리는 베트남 법인 대표이사
-------------	-------------------------------	--------------------	-----------------

*2022. 12. 1. 기준



임청각 안형랑